

# 2025년, 수출시장 진입기업 2.6만개사 5년내 최대

- 세계 175개국, 평균 수출액 30만 달러, 기계·컴퓨터 수출, 수도권 소재 최다

※ 이 보도자료는 '26.4.30일 공표한 "관세청, 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"의 일부통계를 심화분석한 것으로, 수출시장 신규진입 사업체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

## < 요약 >

- ◇ (현황) 2025년 수출시장 신규 진입기업\*은 전년대비 2.7% 증가한 25,953개사로 최근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.
  - \* 전년도(t-1) 수출입 실적이 없다가 당해 연도(t) 실적 발생한 기업(이하 진입기업)
  - 우리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기반을 강화하는 진입기업 증가와 함께 생존율\*(49.9%) 또한 최근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.
    - \* 생존율: 진입기업이 시간경과에 따라 연속하여 수출입 활동을 계속(1년)한 비율
    - 이는 지난해('25년) 최초 7천억 달러를 넘어 신기록(7,093억 달러)을 달성한 우리 수출의 견실한 성장을 반영하는 좋은 신호로 읽힌다.
- ◇ (품목) 진입기업은 기계·컴퓨터 > 전기제품 > 플라스틱 > 화장품 > 자동차 등 품목<sup>업체수 기준</sup>을 취급했고, 1개 업체가 평균 1.7개 품목을 수출했다.
- ◇ (규모) 업체당 평균 수출액은 30만 달러였고, '십만 달러 미만' 수출 기업이 전체의 82%를 차지했다.
- ◇ (국가) 수출국가는 총 175개국으로, 중국 > 미국 > 일본 > 베트남 > 유럽연합 등 순<sup>업체수 기준</sup>으로, 1개 업체가 평균 1.5개국에 수출했다.
- ◇ (권역) 2025년 진입기업은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 > 동남권(부산·울산·경남) > 대경권(대구·경북) > 중부권(세종·대전·충남·충북) 등 순<sup>업체수 기준</sup>으로 나타났다.

담당 부서	정보데이터정책관 데이터담당관	책임자	과 장	강경훈 (042-481-7790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박정률 (042-481-7845) 이기영 (042-481-7878)

□ (현황) 2025년 수출시장 신규 진입기업\*은 전년대비 2.7% 증가한 25,953개사(수출액 77억 달러)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\*\* 중 25.5% 차지

\* 전년도(t-1) 수출입 실적이 없다가 당해 연도(t) 실적 발생한 기업(이하 진입기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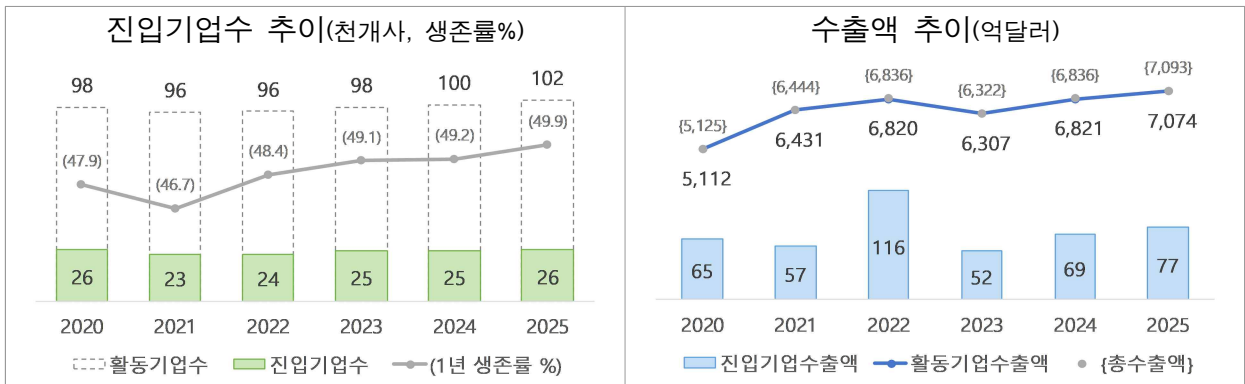
\*\* 사업자번호 기준, 당해 연도(t)에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(이하 활동기업)

○ 진입기업은 전세계에 코로나 기세가 가장 매섭던 2021년을 저점으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로 지난해('25년) 최근 5년 내 최대 기록

- 이 기간 활동기업 역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('25년) 최대 기록

- 2025년 우리 수출은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넘어 7,093억 달러\* 기록하며, 2024년(6,836억 달러)에 이어 역대최대 수출기록을 경신

\* 기업(사업자번호 기준) 수출액은 이 중 7,074억 달러(비중 99.7%)



(단위 : 개사, 전년대비 증감률 %, 생존율 %)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활동기업수	98,140	95,640	95,984	98,159	99,503	101,792
증감률%		△0.4%	△2.5%	0.4%	2.3%	1.4%
진입기업수	<b>25,984</b>	<b>23,303</b>	<b>23,659</b>	<b>25,158</b>	<b>25,280</b>	<b>25,953</b>
증감률%		△2.9%	△10.3%	1.5%	6.3%	0.5%
(진입기업비중)	(26.5)	(24.4)	(24.6)	(25.6)	(25.4)	(25.5)
생존률*(1년)	47.9	46.7	48.4	49.1	49.2	49.9

\* 생존율: 진입기업이 시간경과에 따라 연속하여 수출입 활동을 계속(1년)한 비율

□ (특징) 시장진입을 넘어 안착하는 기업 증가로 견실한 수출 성장세 실현

○ 수출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우리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기반을 강화하는 진입기업의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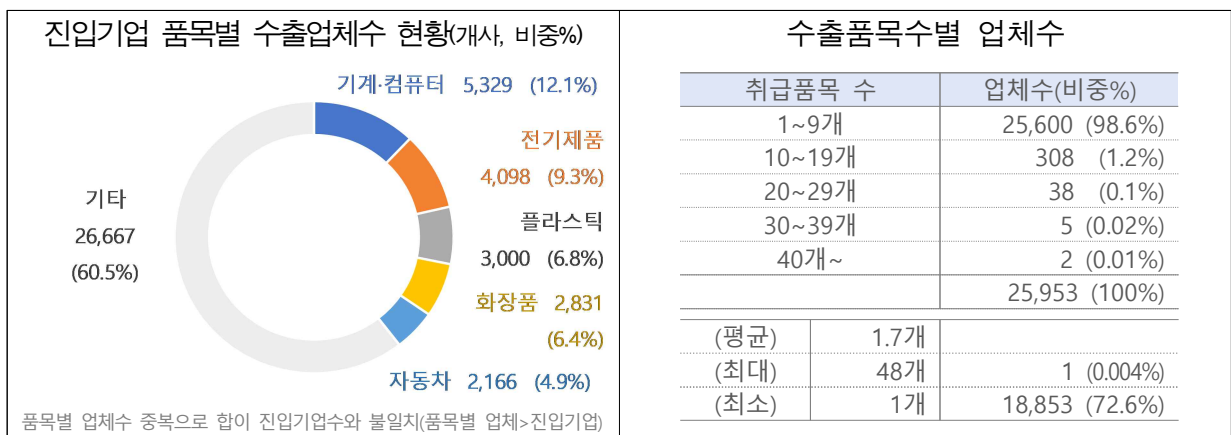
○ 동시에 진입기업 생존율('25년 1년 생존률 49.9%, 최근 5년 내 최고) 역시 점진적 상승세로 단순 시장진입을 넘어 자리를 잡는 기업 증가세

□ (품목) 2025년 진입기업(25,953개사)이 수출한 품목\*을 보면, 업체수 기준 기계·컴퓨터(비중 12.1%), 수출액 기준 귀금속(23.7%) 1위

\* HS(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) 2단위(96개) 기준

○ (업체수) 진입기업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기계·컴퓨터(비중 12.1%), 전기제품(9.3%), 플라스틱(6.8%), 화장품(6.4%), 자동차(4.9%) 등의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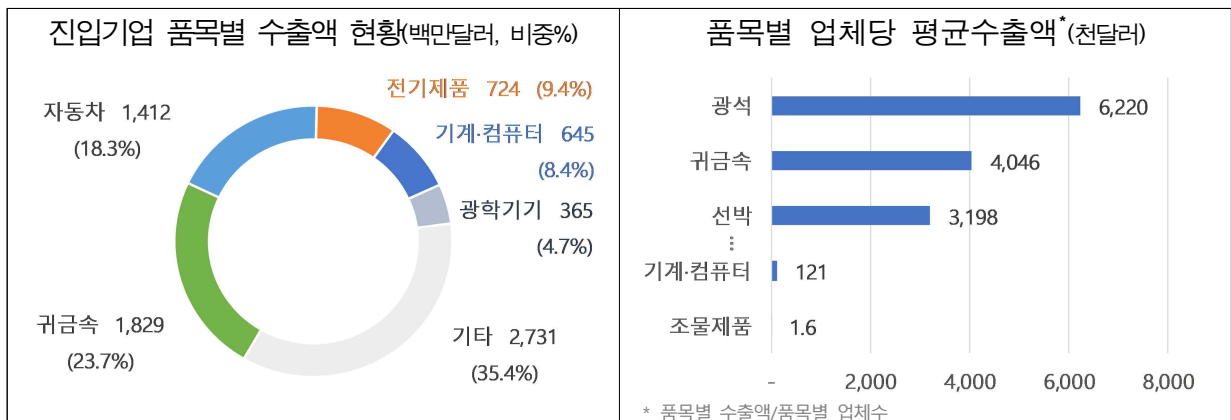
- 진입기업 1개 업체가 평균적으로 취급한 품목의 수는 1.7개고, 10개 미만 품목을 수출한 기업이 전체의 99%



○ (수출액) 품목별 수출 규모는 귀금속(비중 23.7%), 자동차(18.3%), 전기제품(9.4%), 기계·컴퓨터(8.4%), 광학기기(4.7%) 등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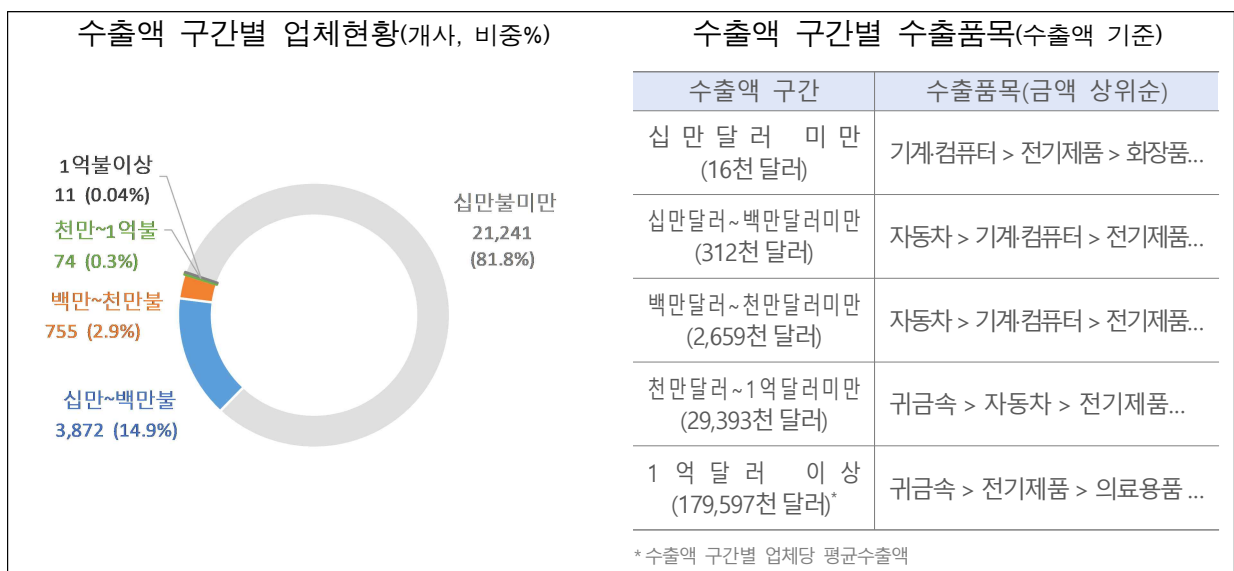
- 품목별 진입기업의 평균수출액은 광석<sup>구리광·부산물</sup> 등이 가장 크고, 귀금속, 선박 등 순이었고, 가장 작은 품목은 조물제품<sup>대나무 바구니</sup> 등

- 진입업체가 가장 많은 기계·컴퓨터의 평균수출액은 12만 달러



□ (규모) 2025년 진입기업(25,953개사)을 수출규모별로 보면, ‘십만 달러 미만’이 전체의 82%(21,241개사)

- 전체 진입기업의 평균수출액은 30만 달러였고, 업체수가 가장 많은 ‘십만달러 미만’ 구간의 업체당 평균수출액은 1.6만 달러
  - ‘십만달러 미만’ 수출한 진입기업의 경우 기계·컴퓨터, 전기제품, 화장품 등 순으로 수출이 많았고, ‘1억달러 이상’의 경우는 귀금속, 전기제품, 의료용품<sup>백신, 의약품 등</sup>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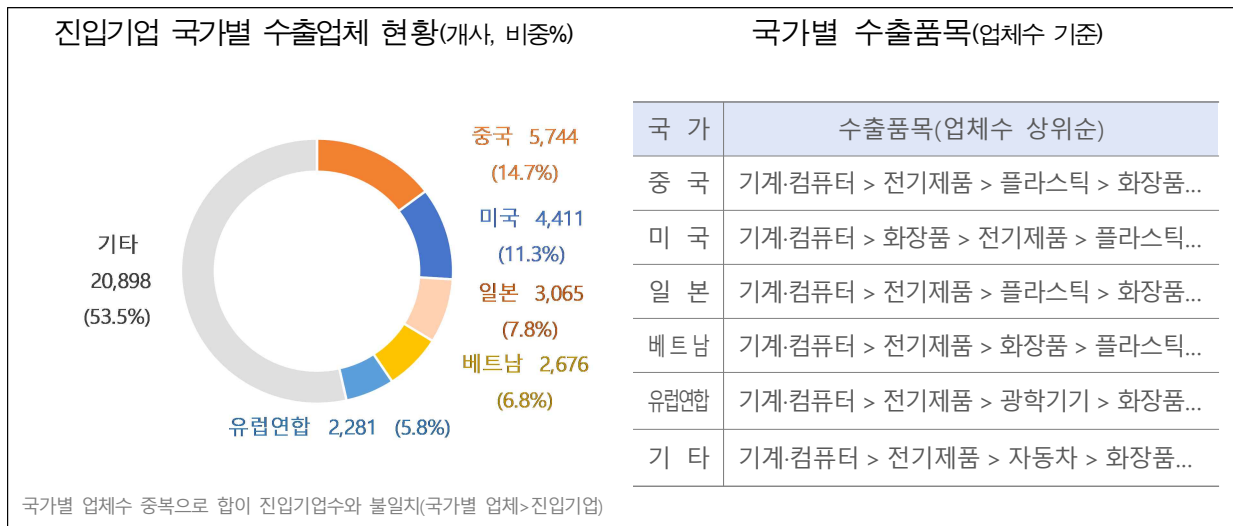


□ (국가) 2025년 진입기업이 수출한 국가는 총 175개국으로, 업체수 기준 중국(비중 14.7%), 수출액으로는 홍콩(27.2%)이 1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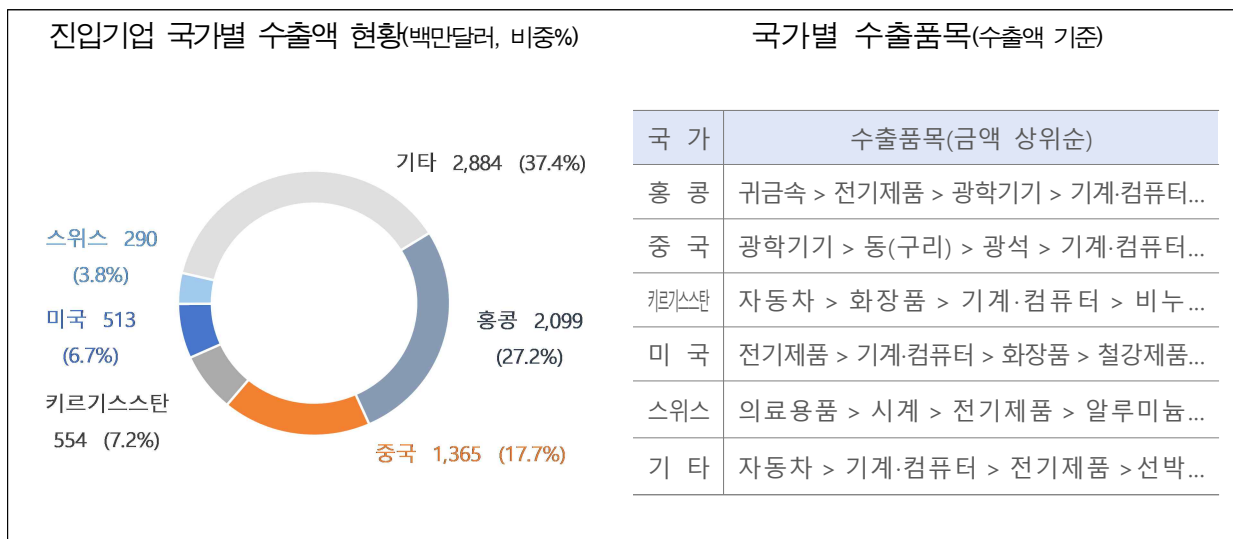
- 1개 업체가 평균 1.5개국 수출, 10개국 미만 수출업체가 전체 진입기업의 99%(25,677개사)
  - 1개 나라에 수출한 업체가 81%인 2만 개사, 50개 나라 이상으로 수출한 진입기업은 2개사

수출국가수별 업체현황(개사, 비중%)		
수출국가 수	업체수(비중)	
1~9개국	25,677 (98.9%)	
10~19개국	212 (0.8%)	
20~29개국	50 (0.2%)	
30~39개국	7 (0.03%)	
40~49개국	5 (0.02%)	
50개국~	2 (0.01%)	
	25,953 (100%)	
(평균)	1.5개국	
(최다)	57개국	1 (0.004%)
(최소)	1개	20,912 (80.6%)

- (업체수) 진입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는 중국(비중 14.7%), 미국(11.3%), 일본(7.8%), 베트남(6.8%), 유럽연합(5.8%) 등 순
- 1위 중국은 기계·컴퓨터, 전기제품, 플라스틱, 화장품 등 순으로 수출업체가 많았고, 미국은 기계·컴퓨터, 화장품, 전기제품 등으로 주요상위국 모두 기계·컴퓨터 수출업체가 최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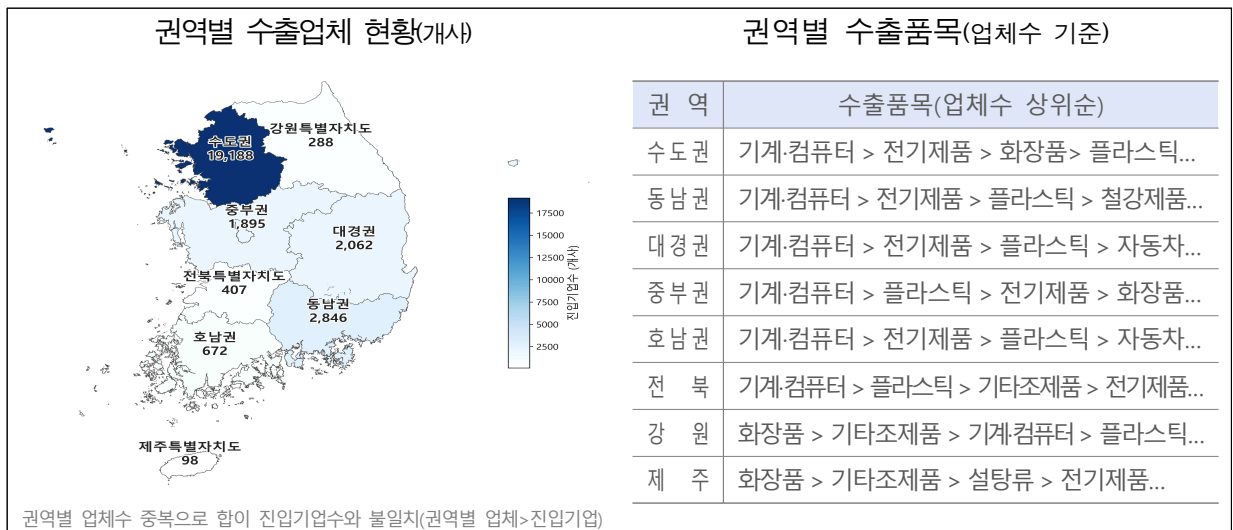
- (수출액) 수출규모로 보면, 홍콩(비중 27.2%), 중국(17.7%), 키르기스스탄(7.2%), 미국(6.7%), 스위스(3.8%) 등의 순
- 진입기업 수출액이 가장 큰 홍콩은 귀금속, 전기제품, 광학기기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고, 다음으로 중국은 광학기기<sup>편광필름 등</sup>, 동(구리), 광석 등 순



□ (권역) 2025년 진입기업(25,953개사)이 분포한 권역을 보면, 수도권이 업체수(비중 69.9%), 수출액(72.1%) 모두 최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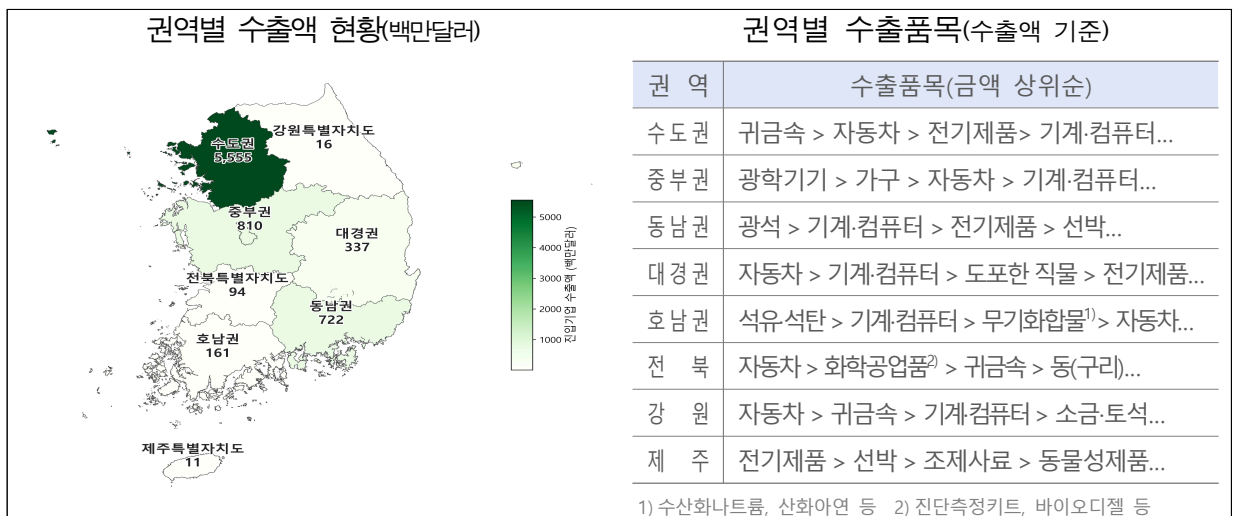
○ (업체수) 진입기업이 가장 많은 권역은 수도권(비중 69.9%), 동남권(10.4%), 대경권(7.5%), 중부권(7.5%) 등 순

- 수도권은 기계·컴퓨터, 전기제품, 화장품 등 순으로 수출기업이 많았고,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장품, 기타조제품<sup>식료품</sup> 등, 설탕류<sup>사탕</sup>, 과자 등 순



○ (수출액) 수출규모로 보면 수도권(비중 72.1%), 중부권(10.5%), 동남권(9.4%), 대경권(4.4%) 등 순

- 수출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은 귀금속, 자동차, 전기제품 등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고, 중부권은 광학기기, 가구, 자동차 등 순



# 일 러 두 기

## □ 작성 목적

- 이 보도자료는 기 공표된 “관세청, 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”(4.30일 공표)의 일부통계(진입기업)를 심화분석한 것임
- 2025년 수출시장 신규진입 사업체에 대한 현황분석으로 진입기업에 대한 추가 분석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
※ 관세청은 2017년부터 수출 전략 및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무역통계와 기업의 무역활동을 연계 분석한 「기업무역활동통계」(기업의 무역시장 신규진입, 지속 활동, 퇴출(중단) 등 생애주기 전반 파악)를 매년 공표하고 있음

## □ 유의 사항

- 2025년 수출시장에 진입한 사업체에 한정된 내용이며 분석관점에 따라 일부 통계는 ‘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’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<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>	<이 보도자료>
•수출시장 진입기업수 •품목[국가]별 진입기업수 A품목에 한정 진입여부 판단, 즉 기존 업체가 새롭게 A품목을 취급하는 경우, 진입으로 판단	•수출시장 진입기업수(동일) •품목[국가]별 진입기업수(상이) 진입기업을 대상으로 A품목 취급여부 파악, 즉 기존업체가 품목을 확대하는 경우 제외

## □ 주요 용어 설명

- 활동기업: 당해 연도(t)에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(사업자번호 기준)
- 진입기업: 전년도(t-1) 수출입 실적이 없다가 당해 연도(t) 수출입 실적이 발생한 기업
- 생존율: 진입기업이 시간경과에 따라 연속하여 수출입 활동한 비율

$$\cdot \text{생존율}(t\text{년도}): 1\text{년 생존율} = \frac{(t-1)\text{년 진입기업이}(t)\text{년까지 활동한 기업수}}{(t-1)\text{년 진입기업수}} \times 100$$

※ 권역구분: 5극(수도권: 서울·인천·경기, 중부권: 세종·대전·충남·충북, 대경권: 대구·경북, 동남권: 부산·울산·경남, 호남권: 광주·전남), 3특(강원특별자치도, 전북특별자치도, 제주특별자치도)

□ 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(4.30일 공표)

(단위: 개사, 억 달러, 전년대비 %)

구분	활동기업			진입기업				퇴출(중단)기업*				
	2025	(증감)	(전년비)	2025	(증감)	(전년비)	(진입률)	2025	(증감)	(전년비)	(퇴출률)	
수출	업체 수	101,792	2,289	+2.3	25,953	673	+2.7	25.5	23,664	△272	△1.1	23.8
	교역액	7,074	254	+3.7	77	8	+11.4	1.1	136	75	+123.9	2.0
수입	업체 수	233,759	4,888	+2.1	65,751	36	+0.1	28.1	60,863	4,448	+7.9	26.6
	교역액	6,044	51	+0.8	51	5	+11.2	0.8	38	△5	△10.8	0.6
무역	업체 수	279,651	6,399	+2.3	73,325	590	+0.8	26.2	66,926	4,022	+6.4	24.5
	교역액	13,119	305	+2.4	108	19	+21.5	0.8	163	81	+97.7	1.3

\* 퇴출기업의 경우 업체 수 및 교역액은 전년도 실적임

\*\* 수출, 수입을 함께하는 경우(55,900개사) 중복제거로 수출+수입 업체 수를 합산한 수치보다 적음

□ 수출 진입기업 현황

<업체수>

(단위: 개사, 전년대비 %)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활동기업	98,140	95,640	95,984	98,159	99,503	101,792
증감률(%)	△0.4	△2.5	0.4	2.3	1.4	2.3
진입기업	<b>25,984</b>	<b>23,303</b>	<b>23,659</b>	<b>25,158</b>	<b>25,280</b>	<b>25,953</b>
증감률(%)	△2.9	△10.3	1.5	6.3	0.5	2.7
생존률*(1년)	47.9	46.7	48.4	49.1	49.2	49.9

\*생존율: 진입기업이 시간경과에 따라 연속하여 수출입 활동을 계속(1년)한 비율

<수출액>

(단위: 억 달러, 전년대비 %)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활동기업	5,112	6,431	6,820	6,307	6,821	7,074
증감률(%)	△5.5	25.8	6.1	△7.5	8.1	3.7
진입기업	<b>65</b>	<b>57</b>	<b>116</b>	<b>52</b>	<b>69</b>	<b>77</b>
증감률(%)	△16.9	△11.5	101.3	△55.1	33.1	11.4